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연다

(일시 및 장소 : 2023년 2월 21일(화) 오전 10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김성환 센터장 등 참여해 센터 출범 알리
-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 경제위기상황판 설치 ... 경제상황 매일 챙긴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가 21일 닷을 올린다.

고물가와 고금리, 이로 인한 본격적인 경기 둔화 국면에 우리 경제가 접어들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중 패권 경쟁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우리 산업의 무역 환경도 날로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는 경제·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출범하였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 하겠다는 계획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리는 출범식에는 '경제위기상황판' 제막식도 함께 진행된다. 이날부터 경제위기상황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주요 지표와 주요 경제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제위기대응센터는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김병욱 부센터장, 진선미 자문위원장, 홍성국 상황실장, 김한규 상황부실장, 민병덕, 박상혁, 양이원영, 오기형, 이동주, 홍정민 상임위원으로 구성됐다. (끝)

2023. 2. 21.(화)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